

뉴 2 1 커 뮤 니 티

## 사람 냄새나는 사이버세상 건설이 꿈

아침 9시까지만 출근하면 근무시간 중 운동을 하러가거나 개인 일을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회사. 그러면서도 주5일 근무이고, 자기개발비와 운동비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회사. 이 꿈같은 회사가 바로 올해로 설립 8년째를 맞은 새싹벤처 뉴21커뮤니티다. 이들은 자유분방한 회사 분위기만큼이나 인간미 흐르는 인터넷 만들기에 노력한다.

**Q** 창업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던 1998년 무렵에는 인터넷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량과 트래픽의 제약이었죠. 무료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도의 사이트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고, 유료서비스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연구실 서버를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회원들이 유료화에 동참하면서 도메인·호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Q** 그간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A** 웹호스팅사업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서버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자금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몇년 전 벤처저풍론이 일면서 뉴21역시 자금난으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700여 명의 서비스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5000여 만원의 성금을 모아주었고, 여러 닷컴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이었지만 뉴21은 회생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Q** 어떠한 벤처기업을 만들어 갈 생각인가요. 단기적으로 뉴21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A** 뉴21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15만명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네티즌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시킬 위키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비스런칭과 함께 2005년에는 월매출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리고, 보다 많은 고객이 동참해 수익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통해 사람 냄새나는 인터넷공간을 만드는 것이 뉴21의 목표입니다.

위키서비스란?

하와이어로 '빨리'라는 뜻의 위키는 1994년 개발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편집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누구나 anybody, 어디에서 anywhere, 어느 것이든 anything, 언제든 anytime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공동체 시스템으로 새로운 정보공유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뉴21커뮤니티의 선남선녀들. 이들이 꿈꾸는 사이버세상은 미소만큼 싱그럽다.(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이정희 대표)